

한빛철학특강

「 동양철학에서 찾는 삶의 지혜 」 참가자 모집

- 운영기간 : 2017. 1. ~ 12. (총 12회)
- 장 소 : 책마을 2층 시청각실
- 특강내용 및 일정

- 일 시 : 매월 마지막 목요일(1월, 12월은 한 셋째주 목요일), 19:00~21:30
- 대 상 : 일반성인 30명

운영일시	프로그램 주제	내용	접수일	접수방법
1월 19일(목) 19:00~22:00	『삼국유사』 - 단군 이야기	고려시대 승려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는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한반도의 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민족의 뿌리를 밝히는 <단군설화>이다.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의 시조를 서술할 때는 신화적 형식을 빌리는데, 만약 일연이 전하는 <단군신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뿌리조차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1월 5일(목) 10:00~	인터넷 (김해시 공공시설예약 서비스)  및  전화접수 (☎330-4837)
2월 23일(목) 19:00~22:00	『삼국사기』 -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사기』는 중국의 고대사를 기술한 사마천 『사기』에 비해 매우 빈약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한반도의 고대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본 강의에서는 삼국의 중요한 인물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열전』 가운데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 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김부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김유신에 대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여 당시의 긴 박함과 김유신의 활약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2일(목) 10:00~	
3월 30일(목) 19:00~22:00	『원효』 - 해골에서 얻은 깨달음	삼국 가운데 신라는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일단 받아들여진 후 불교는 신라의 토속신앙과 결합하여 교세를 매우 확장하였다. 삼국통일 후 신라는 경주 남산을 수미산으로 여기고 신라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려는 이상향을 가졌었다. 이 신라시대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가 바로 원효이다. 그는 그 당시까지 들어온 모든 불교경전을 이해하고 매우 방대한 분량의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무애행을 실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당나라 유학길에 산속 움막에서 자다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깨달았거나, 출가 승려의 몸으로 요석공주와 동침하여 설총을 낳았다는 일화 등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3월 2일(목) 10:00~	
4월 27일(목) 19:00~22:00	『지눌』 - 소를 길들이는 마음	보조 지눌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승려이다. 이 당시에는 중국의 선불교가 통일신라를 통해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눌은 선교양종을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서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주장한다. 즉 경전을 읽는 공부와 마음을 직접 닦아 깨달은 공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마음의 본체를 직접 깨달아 아는 선(禪)을 더 중시하였다. 그는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서,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을 소르 기르는 것에 비유하여 자신의 호를 목우자라고 하였다.	4월 6일(목) 10:00~	
5월 25일(목) 19:00~22:00	『서경덕』 -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	조선은 불교가 가진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면서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이때의 유교는 중국의 성리학이 그 주류를 이룬다. 성리학은 공자의 소박한 윤리학을 우주론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선한 마음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화담 서경덕은 성리학을 수용하면서도 기(氣)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기철학자라고도 한다. 그는 인간과 자연은 모두 기(氣)로 만들어져 있으며, 맑고 깨끗한 하나의 기운이 운동하여 수많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의 저술인 『화담집』은 중국의 <사교전서>에도 수록될 만큼 유명하다.	5월 4일(목) 10:00~	
6월 29일(목) 19:00~22:00	『진묵』 - 얼굴을 뒤엎은 거미줄	조선은 송유역불정책으로 많은 승려를 탄압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도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등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 당시 진묵스님은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깊이 체득한 인물로 전해진다. 한번은 다른 스님들이 식량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스님은 떠날 때의 그 앉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거미줄이 쳐 있고 무릎에는 먼지가 자욱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이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6월 1일(목) 10:00~	

7월 27일(목) 19:00~22:00	『이황』 - 사단칠정 논쟁	퇴계는 율곡과 더불어 한국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퇴계는 안동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퇴계의 학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영남학파라 하고, 율곡은 경기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율곡의 학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기호학파라고 한다. 퇴계의 사상은 고봉 기대승과 주고받은 사단칠정논쟁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쟁에서 퇴계는 몸이 방해하는 것 없이 인간의 순수하게 착한 마음은 그 자체로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봉은 순수한 마음은 언제나 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욕망이 적을 때를 착하다 하고 많을 때를 악하다고 한다.	7월 6일(목) 10:00~	
8월 31일(목) 19:00~22:00	『조식』 -산림(山林)에 문헌 절개	남명 조식은 성리학에 대한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 생활에서 앎을 실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기보다 개인의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며 때에 따라 공론을 형성하여 조정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선비들을 사림(士林)이라고 하였다. 남명은 이 사람의 대표적 인물로 평생 재야에 묻혀 살며 도덕적 이상 정치를 지향하고 실현하려 노력하였다. 그래서인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의 많은 제자들은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8월 3일(목) 10:00~	
9월 28일(목) 19:00~22:00	『이이』 - 그릇 모양은 달라도 같은 물	율곡 이이는 퇴계와 더불어 한국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한다. 그의 영향력은 문묘에 배향된 18현 가운데 8현이 그와 그의 문인임을 감안할 때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율곡과 퇴계는 주자학이라는 큰 틀에서는 그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마음의 발현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 차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율곡은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이고, 퇴계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다. 신사임당 어머니와 그의 가게 그리고 아홉 번 장원급제한 그의 전재성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9월 7일(목) 10:00~	
10월 26일(목) 19:00~22:00	『정약용』 -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조선의 학풍은 실학이다. 이 당시 서양의 자연과학문명과 천주교가 중국을 통해 조선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문명과 서학을 접하게 된 조선의 선비들은 지금까지의 추상적이고 공허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학을 주장하게 된다. 그 가운데 다산 정약용은 누구보다 백성이 근본이 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유학자이다. 본 강의에서는 다산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그의 위민 정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0월 12일(목) 10:00~	
11월 30일(목) 19:00~22:00	『최제우』 - 내 마음이 한울님 마음	조선후기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한국 근대의 자생적 종교가 탄생한다. 수운 최제우가 만든 동학과 소태산 박종빈이 만든 원불교 그리고 강증산이 만든 증산도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수운은 오랜 수행 끝에 양산의 천성산 자연 동굴에서 한울님을 점신하는 체험을 한 후 사람들에게 주문과 부적을 사용하여 치유활동을 한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 마음이 곧 한울님 마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귀천에 상관없이 일체의 근원인 한울님과 하나라는 것이다.	11월 2일(목) 10:00~	
12월 21일(목) 19:00~22:00	『함석헌』 - 나는 백 살배기 바보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자연과학 기술과 철학, 기독교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된다. 그 가운데 탄생한 여러 선각자 중 한 사람이 함석헌이다. 그는 역사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 언론인, 교육가, 시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에 많은 자취를 남긴다. “저항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의 구호에는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저항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그의 강인함 속에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스하며 밝은 빛을 머금고 있다. 그는 인간 영혼에 담긴 신비한 영성의 빛을 생명력의 씨앗이라 하였다.	12월 7일(목) 10:00~	